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1주일
제31권 39호(가해) 2011.8.21

[묵상]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신학 서적과 영화, 인명사전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대답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다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단 대답은 하나밖에 없고
하느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질문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되길 원하심을 말합니다.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신앙인을 원하십니다. -樞-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엄회, 성모회/ 자모회, 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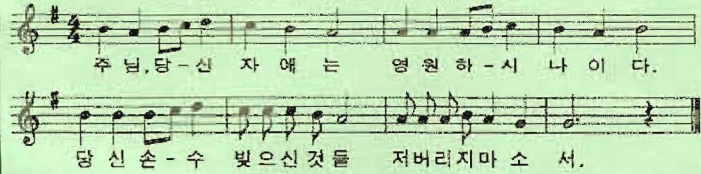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박대수 나자로, 한영기 마르코
특전미사	(생)엄크리스 베르나르도
주 일	(연)오진 베드로, 김인주 미카엘 & 이달자 마리아, 신현익, 권순봉 요안나, 고준희 제임스, 엄익찬 안토니오, 강태람, 엄은섭 도로테오, 김인영 베드로
낮 미사	(생)천광락 야고보 & 남숙 리디아 가정, 김세종 안드레아, 정학순 발바라, 고정민, 신대철 알베르토, 이병우 마리오 & 이정자 아녜스, 사도들의 모후 pr., 신현국 스테파노 & 도영옥 수산나 가정, 조성윤 클라라 & 박재홍 가정, 김병수 베드로 & 김할란 마리아 가정, 남가주남성 제33차 꾸르실료 수강자 & 봉사자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2,19-23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나이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나이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1,33-3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16,13-20

영성체송 주님, 땅이 당신 내신 열매로 가득하오니,
당신은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이시고,
술로 사람 마음을 흥겹게 하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02	323	244
봉헌	Breathe	265	261
성체	You Raise Me Up	306	292
파견	241	200	200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결론

102). 이 회칙의 말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이사 9,6 참조)이신 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나타난 그 생명"(1요한 1,2 참조)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하느님 아드님의 지상 순례가 시작된다. 이 순례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모든 인류를 위한 새생명의 원천이 되실 것이다.

모든 이의 이름으로, 모든 이를 위해서 "생명"을 받아들이신 분은 동정 성모 마리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생명의 복음과 가장 밀접하고도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계신 분이다. 잉태 예고에 대한 마리아의 동의와 그분의 모성애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신비(요한 10,10 참조)의 출발에 서있다. 강생하신 말씀의 생명에 대한 그분의 동의와 사랑에 찬 보살핌은 인간의 생명을 궁극적이고 영원한 죽음의 단죄에서 구해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리아께서는 "당신이 그 전형이신 교회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향해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시다. 실제로 그분은 생명의 어머니이시며,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서 그 생명을 낳으셨을 때, 어떤 면에서, 그분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을 다시 낳아주신 것이다."

교회는 마리아의 모성애를 묵상함으로써 그분 모성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또 교회가 그 모성애를 표현하도록 부름받은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모성애에 대한 교회의 체험은, 마리아의 체험을, 어떻게 생명을 환영하고 돌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할 데 없는 모범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 마리아와 교회의 모성애

103). 교회와 마리아의 신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은 묵시록에서 묘사된 "큰 표징"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12,1). 교회는 이 표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지닌 신비의 모상을 발견한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지상에 하느님 왕국의 "시작과 썩"을 심는다는 의미에서 역사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교회는 이 신비가 마리아 안에서 완전하고도 전형적으로 완성됨을 본다. 마리아는 영광을 입으신 여성이다. 하느님의 계획은 그분 안에서 지고한 완전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었다.(◆계속)

“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예수님이 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주님, 주님’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맹신(盲信)’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따라 신앙인의 유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유형은 자기 과신형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 누구보다 항상 잘할 수 있다고 나서면서 그 어려운 대통령 자리도 바로 자기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무모한 유형입니다. 결국은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하느님도 이름뿐이며 혹 필요하다면 자기 비서 정도로 여깁니다. 둘째 유형은 자기 비하형인데 문제가 더 큽니다.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책임과 의무도 작게 하는 소심한 유형입니다. 늘 익명 속에 안주하고 중립을 선호하는 이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자기 삶 속에 하느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에게 하느님은 걸림돌이고 두려운 심판자입니다. 셋째 유형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겸손한 유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도 제대로 압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충실히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느님은 고향이며, 목적이며,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느 유형의 신앙인입니까? 우리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복음의 베드로 사도는 위의 유형들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팔뚝과 그물과 배만을 믿고 살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이 두려워 자기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영광스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통과 수난을 예고하시자, 그래서 안된다고 말리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이라는 욕을 먹습니다. 어떤 높은 산에서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초막을 짓고 눌러앉아 살자고 조르다 망신당하고, 한번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폭력을 휘둘러 사람의 귀를 잘랐다가 야단맞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한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느님께 맹세까지 합니다. 엉엉 울며 후회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세 번씩이나 사랑다짐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런 무지와 오해, 회의와 갈등의 여정이 끝나고 나서야 베드로 사도는 비로소 진정한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울고 웃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숙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믿음도 부족하고, 실천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세상의 어려움과 신앙의 갈등을 겪어낸다면, 언젠가는 하늘나라 열쇠를 손에 쥐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지요 글라라	신덕례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임정빈 보스코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영호 사도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송현식 바오로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이희경 크리스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독에 성화하는 백삼위"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 단체소개
본당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가입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사후 '우리 단체에 오세요'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업회, 요셉회에 이어 오늘은 **대전회** 차례입니다. 앞으로 남은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월21일 : 대전회 ▶ 28일 : 성모회 ▶ 9월4일 : 자모회
▶ 11일 : 안나회 ▶ 25일 : 빈첸시오 ▶ 10월2일 : 레지오 마리에 ▶ 10월9일 : 배론청년회

◆ '야의 십자가의 길' 공사 진행중입니다.

본당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되는 야의 십자가의 길 14차(the Way of the Cross=14 Stations of the Cross) 봉헌이 단체, 개인별로 모두 끝나고 8월15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치는 성모님 동산앞 잔디밭에 건립됩니다. 오는 9월18일(주일) 본당의 날에 맞춰 완공될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히 주차장 사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배론 청년회 피정 기금마련 냉동 왕만두/왕전빵 판매

- 일시 : 오늘 주일(21일) 낮미사후 천교장
- 품목 : 너무나 맛있는 고기만두와 왕전빵
- 문의 : 배론청년회장 박수민 히메리오 ☎(310)944-4579
- 익명의 교우께서 배론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해 왕만두와 왕전빵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남가주 제33차 남성 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백삼위 본당에서 올해 남가주 제33차 남성 꾸르실료에 4명의 수강자와 2명의 봉사자가 참가합니다.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25일(목)~28일(주일), 엘 카멜로 피정의 집
- 파견예식 : 25일(목) 낮 12시 성체조배식

- 수강자 : 이남현 박시모, 이인석 비오, 김관기 라파엘, 이영석 크리스토퍼 * 봉사자 : 서성용 베드로, 김성현 유스티노
- 본당울트레아 : 오늘 주일(21일) 낮미사후 회의실(점심제공)
- 문의 :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제2기 서예 회원모집

- 연습장소 및 시간 : 매주일 오후 1시15분,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안내<주보 6면 참조>

- 작품신청마감 연장 : 9월4일(주일)까지

◆ 제 68차 남가주 한인 ME 첫주말에 본당 4쌍 참가

- 날짜 : 9월2일(금)~4일(주일), 마리아 요셉 피정센터(PV)
- 참가부부 : 김병록 요셉 ♥ 김지희 체칠리아
김도형 에우제니오 ♥ 조현주 루시아
정차영 프란치스코 ♥ 정종미 클라라
유석영 레오 ♥ 신혜정 로사
- 은혜로운 첫주말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ME 8월 세어링 : 오늘 주일(21일) 오후 6시30분 성당 강당
- 문의 : 본당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올리아 ☎(310)780-9055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의 광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스폰서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이들 업소를 교우들께서는 가능한한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흡연구역외에서는 금연합니다.

- 본당 건물 북쪽 양 코너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니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꽂이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21일과 28일 두차례 소공동체가 마련하는 주일 점심 나누기 천교자리가 없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김성현 김창규 민순섬 송재훈 이경용 이용식 장춘수 황인종	구자운 김영길 김철민 박원철 신현화 이경태 이우성 최진수 황지영	권오상 김원호 김중섭 박정자 양영관 이귀분 이일길 최희숙 한길선례	권태만 김일선 김풍길 박정희 원건희 이근태 이현주 한장환	김관기 김재영 김현숙 방정복 유영근 이석재 임 순 한창주	김낙기 김찬구 문충한 석순영 윤석구 이영희 장정진 홍선자
	합계 : \$5,005					
미사헌금 : \$2,767.25						

성전헌금	고천용 김영길 김풍길 석순영 이경태 이우성 한장환	구자운 김원호 김현숙 신현화 이귀분 이현주 한창주	권오상 김일선 문충한 양영관 이근태 임 순 황인종	권태만 김철민 민순섬 원건희 이석재 장정진 황지영	김관기 김철민 박정희 유영근 이영희 장춘수 한길선례	김낙기 김충섭 방정복 이경용 이용식 최진수
	합계 : \$3,255					
감사헌금 : 이경태 김강훈						
주보광고후원 : \$25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전례모임

- 일시 : 8월28일(주일) 오후 1시 성당
- 대상 : 해설자, 독서자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 전례연습이 있으니 해당학생들은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주일학교 새학기 2차등록 오늘주일(21일)부터 접수합니다.

- 등록비 : 첫째 \$12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9월11일(주일)까지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백삼위 한국학교 새학기 등록 접수중

- 등록일자 : 9월11일(주일)까지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수업시작 : 9월11일(주일) 낮 12시~오후 3시
- 대상 : K~12, SAT II
- 문의 : 김본경 율리아 한국학교장 ☎(310)713-2669

남가주 소식

◆ 제2회 남가주 청년연합 찬미의 밤

- 일시 : 8월27(토) 오후 7시~밤 11시
- 주제 : 나의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
- 대상 : 남가주 전 가톨릭 청년
- 지도신부 : 최용훈 요셉 신부(성 골롬반외방선교회)
- 장소 : 성 토마스 성당(412N. Crescent Way, Anaheim)
- 문의 : 각본당 청년회장
또는 김정옥 펠릭스 남가주회장 ☎(714)200-9862

◆ 연극 '바보 추기경' 공연

-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의 삶을 표현한 연극 '바보 추기경'이 FIAT재단 주최로 LA와 OC에서 두차례 공연을 갖습니다. 한국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연극 '바보 추기경'은 평범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증거이자 '바보로서의 삶'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 OC 공연 : 9월10일(토) 오후 4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애나하임(714)702-9830
 - LA 공연 : 9월11일(주일) 오후 4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 2040 Artesia Bl. 토런스 (310)324-8159
 - 티켓 : 예매시 \$30. 당일\$40

◆ "말씀의 초막절" 축제에 초대합니다.

- 일시 : 9월11일(주일)~18일(주일)
- 개회미사 : 11일 오후 4시, 주례사제 배기현 신부
- 폐막미사 : 18일 오후 4시
- 장소 : 미주 성서모임 센터(부에나파크, ☎714-521-1345)
- 축제를 지내는 한주간은 각 본당별로 공부하던 성서가족들이 성서센터를 방문하여 성경말씀과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8/6(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민원희 안나, 석안젤라 8/13(토) 오후 7시, 성당장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8/11(목)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홍광선 요셉 543-4953 8/20(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우영희 엘리사벳 720-2876 8/9(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휴회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8/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김성현 유스티노 213-458-3356 8/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진열 피데스 516-7472 8/12(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야외반모임 우정의 종각길 공원 8/21(주일) 오전 10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야외 합동 반모임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재은 베드로 997-9006 8/12(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8/14(주일) 11시 미사후,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8/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금명영 세실리아 293-4365 8/9(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휴회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휴회
-----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종합예술대전을 개최하면서 -

백삼위 한인성당 교우 여러분께

본당 설립3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9월10일부터 25일까지 종합예술대전 전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이민 역사를 미루어 볼 때에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백삼위 한인성당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모임의 장소’이며 또한 타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민 생활 속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끼리’ 모여 생활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과 대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냥 바쁘지만 하고,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이곳 이국생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아를 다시 발견하고 보다 알찬 삶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내어 여러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또 더불어 취미 생활도 하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백삼위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 중의 하나로, 이 ‘만남과 대화의 장소’에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자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려는 작품은 여러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유화, 수채화, 한국화, 민화, 조각, 도자기, 서예, 사진, 공예, 자수, Quilt, 꽃꽂이, 詩 등 많은 분야에 걸쳐서 출품될 것이며, 본당 강당에서 이에 준한 설비를 갖추어 전시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다른 분야에서 활동 및 작업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마감 : 9월4일(주일)

- 신청방법 : 본당 사무실에 준비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 혹은 아래의 e-mail로 연락하여 신청서를 Down 받아서 e-mail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myjindale@hotmail.com)
- 작품제출 장소 및 일자 : 본당 강당, 9월4일(주일) 오후 1시 ~ 3시
- 리셉션 일시 : 9월11일(주일) 오후 1시 ~ 3시, 강당
- 전시기간 : 9월11일(주일) ~ 9월25일(주일) 오전 11시~오후6시(월,화- closed)
- 연락처: 이명렬 (310)749-0278

[준비위원]

- * 고문 : 김선제 바오로 (310)541-5840
- * 총무 : 김민수 바오로 (310)986-1890
- * 유화/수채화 : 김운진 카타리나 (310)997-5545, 김주량 요한 (310)217-8193
- * 민화/한국화 : 김선영 글라라 (424)241-5988
- * 사진 : 한장환 안토니오 (310)408-6369
- * 꽃꽂이 :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 서예 : 김대우 비오 (310)920-7647
- * 코디네이터 : 문두현 스테파노 (213)741-0088
- * 도자기/공예/자수/퀼트/시, 기타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